

이도희(李道熙)의 새로운 가사 작품 <직중록>에 대하여*

구사회** · 김영***

<차 례>

1. 머리말
 2. <직중록>의 작자와 서지사향
 3. 덕수이씨 문중의 가사 전승과 <직중록>
 4. <직중록>의 작품 분석과 상호텍스트성
 5. 자료적 가치
 6. 맺음말
- <부록> 전문

<국문초록>

이 논문은 충무공 이순신의 직계 후손인 이도희(李道熙, 1842~1902)가 지은 가사 작품 <직중록(直中錄)>에 대한 연구이다. 주지하다시피, 이충무공은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던 역사적 영웅이다. 그래서인지 이충무공의 집안인 덕수이씨 충무공파에서는 후손들에게 충무공행장이나 가사 작품을 통해 이순신의 위업을 알리고 부덕의 참된 가치를 일깨우려는 전통이 있었다. 그리고 이충무공의 후손들은 그것으로 가문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정신을 고취하였다. 덕수이씨 이충무공파인 이도희의 자손들이 일제 침략을 당하여 모두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던 것도 모두 그와 같은 자부심과 애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413-A00004).

제1저자(선문대학교), *교신저자(선문대학교)

국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계녀가사 <직중녹>은 『충무공행장』 한글본과 함께 그런 맥락에서 지어졌던 가사 작품이다. <직중녹>은 아녀자들의 폐습을 경계하고 마땅히 지녀야 할 부덕을 권유하는 내용으로 형상화되고 있었다. 한편, <직중녹>은 덕수이씨 문중에 전해오던 다른 계녀가사인 <나부가>와 동일한 성격의 가사 작품으로 판단된다. 이들 <직중녹>과 <나부가>는 내용면에서 서로 비슷한 측면이 많다. 이들 작품은 둘 다 부녀자의 언행을 경계하고 지켜야 할 윤리 규범을 훈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작품 짜임이나 표현 방식에서도 상호 텍스트성이 확인된다.

한편, <직중녹>은 콘텍스트와 관련하여 독특한 전승적 자료 가치를 지닌 작품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덕수이씨 이충무공의 후손들이 충무공행장류 한글본과 계녀가사 <직중녹>은 집안 부녀자들을 가르치고 일깨울 목적으로 전승된 독특한 사례로 기록되기 때문이다.

핵심어 : 덕수이씨, 이충무공, 계녀가사, 나부가, 충무공행장, 상호텍스트성, 콘텍스트

1. 머리말

<직중녹>은 이충무공의 후손인 이도희(李道熙, 1842~1902)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인 1901년 정월에 집안 부녀자들을 가르치고 일깨우기 위해 지었던 계녀가사의 일종이다. 주지하다시피, 이충무공은 임진왜란 중에 왜적을 무찌르다 장렬히 전사했던 구국의 영웅이다. 우리 민족은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그를 통해 민족정신을 고취하였다. 임진왜란 이후로 이충무공의 애국정신과 위업을 칭송하는 시문들이 지어졌고, 그것은 오늘

날에도 여러 양식으로 제작되고 있다.

우리 민족의 이충무공에 대한 존경심이 그럴진대, 그의 후손들이 지니고 있을 자부심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을 것이다. 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선양 사업은 영의정 추존이나 현충사 성역화로 이어졌다. 문물 제작도 그런 차원에서 이뤄졌다. 1795년에 정조의 명으로 간행된 『이충무공전서』도 그것의 하나였다.

이충무공의 후손들도 그를 알리려고 노력하였다. 충무공의 조카인 이분(李芬, 1566-1619)은 「행록」을 저술하였다. 이충무공의 행적을 선양하고 가르치기 위한 글들도 지어졌다. 오늘날 남아있는 『충무공행장』 한글본들이 그것이다. 조선시대 아녀자들은 어려운 한문보다 짧은 시간에 쉽게 터득할 수 있는 언문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들 『충무공행장』 한글본이나 다른 언문 기록들은 그 대상이 주로 여성들에게 맞춰졌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충무공행장』 한글본이나 그것에 함께 수록되어 있는 가사 작품 <직중녹>은 주로 집안 아녀자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지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이 논문에서는 덕수이씨 집안의 이종흔(李鍾昕)이 소장했던 『충무공행장(忠武公行狀)』에 수록된 가사 작품인 <직중녹>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직중녹>의 작자와 서지 사항을 밝히고 그것이 덕수이씨 충무공파라는 특정 문중에서 전승된 까닭을 알아보도록 한다. 이어서 작품 분석과 함께 그것이 지닌 담론과 문예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한다.¹⁾

2. <직중녹>의 작자와 서지 사항

<직중녹>의 작자인 이도희(李道熙, 1842~1902)는 충무공 이순신의 직

1) 귀한 자료를 제공하여 연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서울역사박물관 관장님, 김지연 주무관님과 덕수이씨 후손 이종흔님께 지면을 빌어 감사드립니다.

계 후손으로 조선말기 화순군수를 역임했다. 본관은 덕수이고, 자는 선일(善一)이다. 속명은 봉강이다. 그는 무반 출신으로 조부 이사수(李思秀), 부친 이조빈(李肇彬), 본인 이도희, 아들 이규풍(李奎豐)이 4대에 걸쳐 무과에 급제하였다. 그것은 이충무공의 순국 이후로 나라에서 그의 후손들을 무과로 발탁하여 국가 방위를 맡겼기 때문이다. 그 결과 덕수이씨 이충무공의 후손들은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고 구국에 대한 책임감도 남달랐다.

<직중록(直中錄)>은 곧바르고 치우치지 말고 바른 도리(道理)를 지키라는 뜻이다. 그것은 작자인 이도희가 이충무공가의 집안 부녀자들을 가르치고 일깨우려 지은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도희의 후손들과 부녀자들은 국난을 당하여 모두 구국 운동에 투신하였다. 이도희의 부인 박안라(1853~1922)는 아들 이규풍과 이규갑을 독립투사로 키웠다.

큰아들 이규풍(李奎豐, 1877~1931)은 1905년 을사늑약이 이뤄지자 고종의 밀명을 받고 러시아로 가서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연해주에서 죽었다. 그의 부인 오세라(1875~1939)도 1922년에 아들 이민호와 함께 연해주로 가서 남편 이규풍의 독립운동을 도왔다. 둘째 아들이었던 이규갑(李奎甲, 1888~1970)은 1907년 홍주의병에 참가하였고 국내외를 넘나들며 독립운동을 하였다. 그의 부인인 이애라(1894~1922)도 남편의 독립운동을 도와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모금활동을 하였고 임정의 밀서를 갖고 국내로 잠입하다가 체포되어 고문으로 순국하였다. 이규풍의 아들 이민호(1895~1944)도 3·1운동 때에 만세 시위를 주도하다가 3년간 투옥되었다. 이후로 그는 가족을 이끌고 만주로 탈출하여 김좌진 장군의 휘하에서 활동하다가 순국하였다. 그의 아들 셋도 독립운동에 참가하였는데 모두 실종되었다. 이처럼 이도희의 후손들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그것은 이충무공의 후손이라는 자부심과 나라를 구하려는 애국심에서 나온 것이다.

한편, 일제강점기에 이충무공 후손들이 독립운동에 몸을 바친 것은 덕수이씨 집안에 시집온 여성들의 역할이 컸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에

투신한다는 것은 모진 탄압을 받고 집안 자체가 궤멸되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렇지만 이도희의 후손들이 편한 길을 가지 않고 고난의 길을 선택했던 것은 그와 같은 가문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집안 교육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그의 집안에서 나온 『충무공행장』 한글본과 가사 작품 <직중녹>의 저술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후손들은 실기 문학의 일종인 『충무공행장』 한글본을 통해 가문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을 키웠다. 그리고 계녀가사인 <직중녹>을 통해 부녀자들이 지녀야 할 덕목과 가치를 배울 수 있었다. <직중녹>이 『충무공행장』 한글본과 함께 기록되어 편집된 것도 바로 그런 까닭이다.

『충무공행장』 한글본은 현재 네 편이 전하는데 이충무공 후손가에서 주로 부녀자들도 읽을 수 있도록 지어졌다.²⁾ 이 책은 본래 이충무공의 후손인 이종흔(李鍾昕)의 소장본이었으나 현재 서울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³⁾ 내지 앞면에 “신축 정월 초십일 시초호노라 이 책은 비인의 극히 소중한 책이니 보시난 군즈는 정이 보시고 다른 데 전치 말고 즉시 보닉 시압”이라고 적혀 있다. 내지 뒷면에는 각읍 서원 11곳을 적고 있고, 그 하단에 “이 책은 극히 소중한니 막우 굴니지 말고 막우 빌니지 말고 정이 보기를 천망 바라노라”라는 언급에서 작자가 이 책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짐작할 수 있다.

책 이름은 『통묘공행장』이고 행장이 처음부터 29면까지 적혀 있고, 이어서 이충무공이 지은 한시 네 수가 실려 있다. 본고에서 다루려는 <직중녹>은 31면부터 37면까지 적혀있다. 가사에 앞서 “직중녹이라 니봉강이 지은 거시라”라는 언급에서 작자가 이봉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봉강의 본명은 이도희이다. 그리고 316구 158행의 장형가사인 <직중녹>이 기록되어 있다.⁴⁾ 가사 작품 말미에는 “曾經和順郡守 덕슈후인 니봉강은

2) 『충무공행장』 한글본에 대해서는 김영의 다음 논문을 참조하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영, 「한글필사본 충무공행장에 대하여 -새 자료 우리한글박물관 소장 『통묘공행장』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40, 열상고전연구회 2014.06)

3) 김영, 위의 논문, 11쪽.

4) 가사는 60구 이하를 단형가사, 300구까지를 중형가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

근셔흐노라 봉강의 휘난 道熙 신축 정월 십팔일은 등셔우안성직중흐노라 이 직중녹을 고담으로 알지 말고 상목지지혀 잇지 말면 현부인이 될 거 시요 만일 즈포즈기혀 이갓치 하난 스람이 어디 잇스랴 흐면 이난 하우 불이요 쏘 가도난 반다시 비식흐리라”라는 후기가 있다. 여기에서 덕수이씨 이도희가 그가 죽기 1년 전인 1901년 1월 18일에 지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직중녹>은 집안 부녀자를 가르치고 일깨우기 위해 지었다는 것도 함께 알 수 있다.

3. 덕수이씨 문중의 가사 전승과 <직중녹>

고려 때 중랑장(中郎將)을 지낸 이돈수(李敦守)를 시조로 하고 있는 덕수이씨(德水李氏) 문중은 조선조에 들어와서 용재(容齋) 이행(李荇, 1478~1534)을 거쳐 율곡(栗谷) 이이(李珣, 1536~1584)와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 1545~1598)을 배출하면서 명문가로 발돋움을 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이율곡은 퇴계 이황과 쌍벽을 이루는 성리학자였고, 이충무공은 전쟁으로부터 나라를 구했던 장군이었다. 덕수이씨가 조선조 중종 재위로부터 영조 대에 걸쳐 성세를 이루었던 것은 용재(容齋) 이행(李荇)이나택당(澤堂) 이식(李植, 1584~1647)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율곡과 이충무공의 영향이 컸다. 하여튼 율곡과 충무공이 조선을 대표하는 문인과 무인이었다. 그 이후로 덕수이씨 가문은 문무 양쪽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 논문에서 다루려는 가사 작품은 무인과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을 수 있는 덕수이씨 충무공파의 문중과 관련이 깊다.

이충무공이 임진왜란으로 나라를 위해 장렬히 전사하자 덕수이씨 문중과 조정에서는 그의 불멸 정신을 기리고자 선양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충

상을 장형가사라고 할 수 있다. (홍재휴, 「가사」, 『국문학신강』(국문학신강편찬위원회 편), 새문사, 1985, 173쪽). 따라서 이도희의 <직중녹>은 316구로 장형가사라고 할 수 있다.

무공의 5대손인 이봉상(李鳳祥, 1672~1728)에 의해 간행된 『충무공가승(忠武公家乘)』(6권 2책)이나 1795년에 국가 차원에서 간행된 『이충무공전서』(14권 8책)이 바로 그러한 사례이다. 한편, 이충무공의 직계 후손들은 이충무공의 행적을 한글로 서술하여 집안 아녀자들을 가르쳤다.

이들 충무공행장류 한글본은 현재 4종이 전하고 있다. 우리한글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통묘공행장』,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선조충무공행장(先祖忠武公行狀)』, 서울역사박물관에 소장된 『통묘공행장(忠武公行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통묘공행장』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 네 편의 충무공행장류 한글본은 모두 덕수이씨 이충무공의 후손가에서 나왔고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저술된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 우리한글박물관 소장본과 서울역사박물관 소장본에는 가사 작품이 함께 실려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같은 덕수이씨 이충무공 후손인 이준영(李峻永, 1879~1907)이 필사한 것으로 알려진 <나부가>가 있다.

우리한글박물관 소장본에는 <난부가>, <뵈틀가>, <옥설화담>, <호서가>, <퇴계선생지도가>가, 서울역사박물관 소장본에는 <직중녹>이 수록되어 있다. 정리하자면 <뵈틀가>는 민요 계통이고 나머지는 모두 가사 작품이다. 먼저 <난부가>는 주로 부녀자를 선도하기 위해 지은 가사이고, <뵈틀가>는 여인들이 베 짜는 일을 소재로 한 민요이다. <옥설화담>은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한 것이고, <호서가>는 충청도의 지명을 사용하여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퇴계선생지도가>는 <권선지도가>로도 일컬어는데, 학문을 열심히 닦자는 내용이다. 그렇지만 이퇴계가 지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직중녹>은 <난부가>처럼 부녀자를 가르치고 일깨우는 내용이다.

이들 작품은 모두 덕수이씨 충무공 후손가에서 나온 것이고, 차이가 있지만 <난부가>, <나부가>, <직중녹>은 부녀자들을 계도하기 위해 지은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우리한글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통묘공행장』에 실려있는 <난부가>는 두 편이 있다.⁵⁾ 둘 다 <난부가>로 기록되어 있지만 내용은 다르다. 하나는 <懶夫歌>이고, 다른 하나는 <懶婦歌>이다.

전자는 남자를, 후자는 여자를 대상으로 훈계하기 위해 지은 것으로 보인다.

<나부가>와 <난부가>는 같은 성격의 노래이지만 표기명이 다르다. 우리 한글박물관에 소장된 작품만 <난부가>로 표기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나부가>로 되어 있다. 현재 ‘懶’는 ‘게으를 라’로 풀이하고 있으나⁶⁾ 『四聲通解』(1517), 『新增類合』(1527), 『倭語類解』(1781) 등의 문헌에서는 ‘懶’를 ‘게으를 란’으로 적고 있다.⁷⁾ 즉, ‘란’이었던 본음이 이후에 ‘나(라)’로 변화된 경우이다.⁸⁾

<나부가>와 <난부가>는 내용도 다르다. 이들 작품이 덕수이씨 충무공 후손들에 의해 지어진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필사는 후손들에 의해 이뤄졌다. 다만, <직중록>은 이충무공의 8대 후손인 이도희(李道熙, 1842~1902)가 지었다.

이들 충무공행장류 한글본과 가사 작품인 <직중록>의 생산 주체는 덕수이씨 충무공 후손인 이도희였고 수신자는 집안의 부녀자들이었다.⁹⁾ 덕수이씨 문중에서는 이것으로 집안 부녀자들에게 선조인 이충무공의 위업을 가르쳐서 가문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난부가>등과 같은 교훈적인 가사 작품을 통해서 여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부덕을 일깨우고 잘못된 아녀자의 행실을 경계했던 것으로 보인다. <직중록>도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창작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이충무공행장류 한글본은 이충무공 가르치기의 일환으로, 그것에 부기된 <직중록>은 문중 부녀자들의 행실을 경계하기 위해 지어진

5) 현재 검토중이다.

6) 민중서림 편집부, 『漢韓大字典』(개정증보판), 민중서림, 1997, 797쪽.

7) {란} 懶懶嬾: 惰也 『四聲通解』(上79a)/ 懶 게으를 란 『新增類合』(下42a)/ 懶 게으를 란 『倭語類解』(上24a)/ 懶 {란} 解也, 怠也. “懶”同. 『全韻玉篇』(上39b) 박재연, 『중조대사전』4권, 선문대 중한번역문헌연구소, 2002, 364쪽.

8) ‘懶(게으를 란)’과도 통용되는 글자였으므로 ‘난부’를 ‘懶夫/懶婦’로 적을 가능성도 있다.

9) 확실하지는 않지만 <난부가>의 작자도 덕수이씨 이충무공의 후손일 가능성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난부가> · <나부가> · <직중록>은 비판이나 풍자보다는 오히려 교훈적인 성격의 가사 작품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4. <직중록>의 작품 분석과 상호텍스트성

<직중록>의 작품 구성은 대부분의 가사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서사(序詞)’ - ‘본사(本詞)’ - ‘결사(結詞)’로 이뤄져 있다. ‘본사’는 다시 ‘본사 1’과 ‘본사 2’로 나뉘면서 내용에 따라서 ‘기승전결’ 4단 구성의 양식을 구현하고 있다. 먼저, ‘서사’는 ‘어와 부인들은 너 말씀 드리보오’로 시작하여 제12행 ‘기과천선(改過遷善)호오며는 현부인(賢夫人)이 되압나니’까지이다.

어와 부인들은 너 말씀 드리보오
 부모의게 효도호고 장부(丈夫)의게 공경호오
 동기간의 우의 잇고 일가친척 화목호오
 비복(婢僕)의게 은의(恩意) 잇고 즈질들을 교훈호오
 부귀영화 썩 잇스니 남의 부귀 부러마오
 남과 갖치 잘못 입고 남과 갖치 잘못 먹어
 고싱한다 한을 말고 착한 일만 힘을 쓰오
 유순부덕(柔順婦德) 호련이와 녀모정열(女慕貞烈) 제일이요
 한마암 굳게 가져 슈화(水火)라도 변틀 마오
 이왕의 지닌 일을 가만이 싱각호여
 허물이 잇거들낭 죽기로 힘을 써서
 기과천선(改過遷善)호오며는 현부인(賢夫人)이 되압나니¹⁰⁾

서사(序詞)가 시작되는 위의 ‘어와 부인들은 너 말씀 드리보오’에서 알 수 있듯이 전언의 대상은 결혼한 여성이다. 화자는 서사에서 어진 부인이

10) 인용문에서 () 안의 한자는 필자가 임의로 넣은 것이다.

되기 위해 지녀야 할 태도와 마음가짐이 무엇인지를 유교적 덕목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먼저 부모님께 효도하고 남편을 공경하기를 권면하고 있다. 집안에서는 우애와 화목을 강조하며 아랫사람인 종들에게 은의를 베풀라고 말한다. 최고의 가치 규범으로는 부덕(婦德)과 정렬(貞烈)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잘못을 뉘우치고 노력해서 고쳐나가면 마침내 이상형인 현부인(賢夫人)이 될 수 있다고 단언한다. 여기 <직중록>의 서사 단락은 주제를 구현하기 위한 도입 단락으로 계녀가사의 전형을 보여준다.

그리고, 서사에서 ‘어와 부인들은 너 말씀 드리보오’를 비롯한 어구들은 어디에선가 보았던 것처럼 낯설지가 않다. 이 어절은 이충무공 후손인 이준영(李峻永, 1879~1907)이 필사한 것으로 <나부가>의 ‘어화 세상(世上) 부니(婦女)덜이 너 말씀 드르보소’와¹¹⁾ 표기법 차이만 약간 있고 그대로 일치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들 가사는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특정 어구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새롭게 바꾸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이 두 작품 중 하나가 다른 것을 선행 텍스트로 삼아 사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들 어휘는 규방가사가 시작되면서 상투적으로 사용되는 어구이기도 하다. 이어지는 각각의 내용도 다른 가사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어구이거나 표현이기도 하다. 이것은 하나의 텍스트에 사용된 기호가 다른 텍스트에 다시 사용되는 것으로 상호텍스트성의 ‘전치(轉置)로 봐야한다.¹²⁾

‘본사’는 다시 ‘본사1’과 ‘본사2’로 나뉜다. ‘본사1’은 13행부터 89행까지이고, ‘본사2’는 90행부터 156행까지이다. ‘본사1’에서는 부인들이 조심해야 할 언행과 마땅히 지켜야 할 덕목을 다음처럼 제시하고 있다.

조심하고 조심하고 언어(言語) 범절(凡節) 조심하고

11) 임기중, 『한국 역대가사문학집성』(누리미디어, <http://www.krpia.co.kr/pcontent>)

12) 텍스트의 기호가 다른 텍스트로 옮겨짐으로써 그 기호가 포함하고 있던 개념이 함께 옮겨져 연결되는 상호텍스트성의 ‘전치(轉置)’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김도남, 『상호텍스트성과 텍스트 이해 교육』, 박이정, 2003, 123-155쪽.)

말 혼 번 실슈흐면 꺾가망신(敗家亡身) 첩경(捷徑)이요
 입 가온디 불근 셔난 몸 버히난 독괴오니
 충언(忠言)이 아니여든 입 밧기 너지 말고
 악언(惡言)이 들니거든 귀 기우려 듯지 마오
 분한 일을 당흐거든 어려운 걸 싱각흐고
 어려운 일 당흐거든 스찰함을 싱각흐오
 심스(心思)를 바로 가져 빅스(百事)를 올케 흐면
 명천(明天)이 감동흐사 만복(萬福)을 나리시리
 어진 부인 hing실 보오 효행(孝行)을 문져 흐너
 부모 명녕 드디여셔 타문(他門)에 출가(出嫁)흐여
 신행(新行)한 지 숨일 만의 부역 아리 드리가셔
 감지(甘旨)를 밧들 적의 정성이 지극하다
 계초명(鷄初鳴)에 일어나서 머리 빗고 세슈흐고
 님식 업시 정이흐고 부모 침쇼 드리가셔
 나죽이 쇼리흐여 공순이 못줍난다
 안녕이 쥬무신가 무슨 옷슬 입으실가
 무슴 엄식 줍슈실가 식성 맞게 봉양흐너
 부모의 명녕디로 일호(一毫)나 어괴울가
 (후략)

‘본사1’은 4음보 77행에 걸쳐 언어 범절로부터 시작하여 시부모 모시
 기와 제사 받들기, 남편 섬기기, 아래로는 비복들을 다스리고 태교에 이르
 는, 이른바 어진 부인으로써 갖춰야 할 낱낱의 사항들을 열거하여 제시하
 고 있다. 이를 요약하자면 <직중록>의 ‘본사1’에서는 부녀자들이 지켜야
 할 행실로 ‘①시부모 섬기기, ②제사 받들기, ③남편 섬기기, ④형제 우애,
 ⑤자녀 교육, ⑥길쌈과 의복짓기, ⑦제사와 손님 접대, ⑧태교와 출산, ⑨
 노비 다스리기’등을 들고 있다.

<직중록>의 이러한 내용은 같은 덕수이씨 이충무공 문중에서 전승되던
 <나부가>에서의 덕목과 대부분 일치한다. <나부가>의 ‘본사1’에서는 부녀
 자들이 출가 이전의 규범으로 ‘①부모 섬기기, ②제사 받들기, ③길쌈과
 의복짓기, ④독서하기(내칙편과 열녀편), ⑤문밖출입 삼가기’를 익혀야 한
 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출가해서는 ‘①시부모 섬기기, ②제사 받들기

와 손님 접대, ③남편 섬기기와 시동생과 화목하기, ④노비 다스리기, ⑤ 행동거지, ⑥길쌈하기'를 내세우고 있다.¹³⁾

이를 비교해보면, <직중녹>과 <나부가>는 내용을 서로 공유하는 측면이 대부분이고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것은 이미 존재하던 내용을 관습적으로 담론화하여 그것을 변형시켜 재조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작품은 제목이 서로 다르지만 주제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상호텍스트성이 존재한다. 이들 작품의 작자는 가사를 독창적으로 창작하였다기보다는 기존에 이미 있었던 내용을 관습적으로 사용하거나 내용을 변형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나부가>와 <직중녹>이 부녀자의 말과 행실에서 주의할 점이나 준수 사항, 어버이에 대한 올바른 효도 방법 등과 같은 유교적 규범을 담론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녀가류 가사 작품의 전형을 보여준다.

다만 '본사1'에서 이들 작품 사이에 서술상의 차이는 있다. <직중녹>에서는 사대부 아녀자들이 지켜야 할 규범으로 먼저 언어 범절을 제시하고 나서 그 구체적 사항을 서술하고 있다. 반면에 <나부가>에서는 아녀자들이 지켜야 할 규범과 행실을 출가 이전과 출가 이후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직중녹>에서는 출가 이전의 교육은 생략되고 출가 이후의 규범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직중녹>에서 '본사1'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부녀자들의 바람직한 언행을 권유한다면, '본사2'에서는 못된 부인들의 행실을 비판하며 경계하고 있다.

못된 부인 형실 보쇼 불효가 막심흐니
공경을 모르거든 은의를 엇지 알소
제 부모 불효흐며 나의 부모 공경흐기

13) 이러한 사부인의 직분에 대한 '주제적 표현'은 전형계녀가(典型誡女歌)에 나타난 11개 조목의 교훈과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한기, 「가사 <나부가>의 형성 배경에 대한 연구」, 『어문연구』 34권 1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6, 377-380쪽.)

제 동심 뉘워흐며 남의 동심 스랑흐기
 공연이 투괴(妬忌)흐야 너외간 불화흐고
 가난흐다 원망흐고 남의 부귀 부러흐기
 식부모 식동심의 업난 흥 잡아너지
 동서간 동심간의 속술 : : 이간흐기
 고약한 말 간스부러 장부의게 ㄹ당(阿黨)흐기
 게으름 짝이 업셔 아의 끼고 낮잠 짓기
 가난흐다 즈세흐니 남편 의복 남누흐다
 제스를 당흐면은 공연이 증(症)을 너여
 즈식의 타시런가 주먹으로 두다리기
 육간티청(六間大廳) 구루면서 비복을 꾸진난다
 욕으로 제 지너니 신도(神道)ㄹ 흠향(歆響)할가
 손님이나 오시면은 귀치 안타 꾸짓난다
 스랑문 비겨 셔 : 은근이 여어 보기
 타인을 디혀셔 친정 즈랑흐난고나
 호의호식(好衣好食)흐던 몸이 식집 와서 고칭흐다
 친정 스람 만나보면 식집 흠담 잡아너지
 친정 전곡(錢穀) 가져다가 식집 먹여 슬년노라
 괴세가 당 : 흐야 집안을 휘젓난다
 긴 담비디 빗기 물고 술 먹고 세척(貰冊) 보기
 조흔 말 허튼 우슴 남을 속여 빗너 쓰기
 오락가락 말질혀 무릅맛침 일슈로다
 (후략)

‘본사2’는 못된 부인의 행실을 열거한 부분과 집안 부인들을 경계하는
 부분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90행부터 118행까지가 전자에 해당하고,
 119행부터 156행까지가 후자에 해당한다. <직중록>에서 보여주는 못된
 부인의 행실은 주로 유교적 윤리 규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것에서
 드러나는 못된 부인의 행실을 살펴보면, ‘①불효와 불화(시부모께 불효,
 내외간의 불화), ②험담(흥보기, 이간질과 아첨), ③나태함(낮잠자기, 제사
 소홀, 손님 박대 등), ④방탕과 무절제(흡연, 음주, 세책보기, 시비 가림,
 군것질, 도둑질)’로 요약된다. ‘본사2’에서의 ‘못된 부인’은 부정적인 행실
 의 대명사이다. <직중록>의 ‘못된 부인’은 <나부가>에서 못된 행실의 대

명사인 금세부인과 비견된다. <직중록>의 못된 부인과 <나부가>의 금세 부인이 일으키는 잘못된 행실은 유교적 규범을 일탈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방향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나부가>의 작품 전체는 근검(勤儉)이란 교훈이 중심을 이루고, 부정적 인물인 금세 부인에 대한 형상화는 근검(勤儉)이란 교훈에 집중된 감이 있다.¹⁴⁾ 반면에 <직중록>에서는 효도와 같은 윤리 규범이나 언어 문제를 먼저 강조하면서 부각시키고 나서 나태나 낭비와 같은 불량한 생활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나부가>에서 금세 부인의 잘못된 행실은 70행에 이르고 있는데, <직중록>에서는 29행으로 상대적으로 짧다. 반면에 <직중록>에서는 <나부가>에 없는 화자의 못된 부인을 경계하는 48행의 교훈적 담론이 있다. ‘조고마한 일기 너가 남의 집을 망케 헛네. 여보시오 부인들은 조심하고 조심하고’의 언급에서 작자로 느껴지는 화자의 경계는 남을 업신여기지 말라든가, 공치사를 하지 말라든가 하는 13가지 사항을 경계하여 교훈하고 있다.

‘결사’는 작자인 화자가 집안 부녀자들에게 당부하는 부분이다. 마지막 2행에 해당하는 ‘어와 이 글이여 보암즉던 아니흐나, 구: 한 이너 쓰즐 저바리지 말지여다’가 그것에 해당한다. 그러한 경계의 당부는 <나부가>의 결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어화 세상 부닌(婦人)덜아 너 말슴 격언(格言)니르/ 부디 ~~ 경계(警戒)하여 현찰부닌(賢哲夫人) 되겨 호쇼’로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덕수이씨 충무공 후손가에 전승되던 계녀가사 <직중록>의 작품 내용을 살펴보면 같은 문중에 전승되던 <나부가>와 서로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 다 덕수이씨 이충무공 후손가에서 전승되며 집안 부녀자들을 가르치고 경계하는 내용의 계녀가사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들은 제목이 다르지만 작품 내용이나 어구 표현, 구성 방식이 서로 비슷한 측면이 많다. 그것은 이들 작품은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텍스트를 기억과 변형의 과정을 통해 재조직하였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여

14) 정한기, 위의 논문, 380쪽.

기에서 이들은 서로 상호텍스트성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

5. 자료적 가치

『통류공행장』을 비롯한 충무공행장류 한글본과 그것에 부기된 <직중녹>을 비롯한 몇몇 가사 작품은 조선후기 덕수이씨 이충무공 후손가에서 전승되던 문예물이다. 충무공행장류 한글본은 덕수이씨 이충무공 후손가에서 부녀자들에게 조상인 이충무공의 위업을 인식시키고 가르치기 위해 지어졌다. 가사 작품 <직중녹>도 집안 부녀자들의 폐습을 경계하고 부덕을 권유하려는 의도에서 지어졌다.

이 과정에서 주목되는 점은 충무공행장류 한글본이나 <직중녹>과 같은 가사 작품이 덕수이씨 이충무공의 후손이라는 특정 가문에서 창작되고 향유되면서 전승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들 문예물은 외부보다는 주로 덕수이씨 충무공파의 문중 내부에서 전승되며 향유되고 있었다.

이처럼 조선후기의 특정 작품을 당파나 가문이 향유하며 전승시킨 사례는 이따금 확인할 수 있다. 예로써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의 계녀서(戒女書)는 부녀자로서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도리가 20개 항목으로 정리되어 있다. 그런데 이 계녀서는 필사되어져 주로 노론가에서 부녀자 교육 텍스트로 전승되었다. 도학가류 가사 작품도 당색에 따라 분화되기도 하였다. 동방 도학의 적통이 포은 정몽주에서 율곡 이이와 우암 송시열로 이어진다는 <황남별곡>은 주로 노론계에서, 포은 정몽주에서 회암 이언적과 퇴계 이황으로 이어진다는 <황산별곡>은 주로 남인계에서 향유하며 전승되었다.¹⁵⁾ 한편, 송강 정철이 지은 <관동별곡>을 비롯한 가사

15) 이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구사회, 「<황산별곡>의 작자 의도와 문예적 검토」, 『한국고전시가의 작품 발굴과 새로 읽기』, 보고서, 2014, 354~387쪽/ 이수진, 「조선후기 당파에 따른 도학가류 가사작품의 이본 분화 연구」, 『온지논총』39집, 2014, 99-123쪽)

작품에 대한 번사 작업도 그의 후손이나 서인계 인물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었다.¹⁶⁾ 이런 측면에서 조선후기 덕수이씨 충무공파에서 충무공행장류 한글본과 <직중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자료는 수집과 진열의 과정에서 공간적으로 분리되면서 필연적으로 그것이 본래 지녔던 콘텍스트를 상실하기 마련이다. 덕수이씨 충무공파의 충무공행장류와 가사 작품을 비롯한 자료들도 본래의 소장자를 벗어나 이제는 몇몇 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다. 그렇지만 덕수이씨 이충무공 후손가에서 전승되던 이들 문예물들은 충무공행장류와 특정 가사 작품이 결합되어 있어서 그것들이 지니고 있던 본래적 텍스트를 상실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를 통해 이들 충무공행장류 한글본이나 <직중록>과 같은 계녀가사를 통해 조선후기 특정 문예물의 가문 전승이라는 사례를 확인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6. 맺음말

<직중록(直中錄)>은 충무공 이순신의 직계 후손인 이도희(李道熙, 1842~1902)가 지은 가사 작품이다. 조선후기 덕수이씨 이충무공 후손가에서는 『통묘공행장』을 비롯한 충무공행장류 한글본과 <난부가>를 비롯한 몇몇 가사 작품이 전승되고 있었다. 이충무공 집안에서는 후손들에게 이들 충무공행장류를 통해 조상인 이순신의 위업을 일깨웠다. 그리고 집안 부녀자들에게는 계녀가사를 통해 지켜야 할 언행이나 윤리 규범을 가르쳤다. 이를 통해 이충무공의 후손들은 가문에 대한 자부심과 구국 정신을 고취하였다. 덕수이씨 이충무공파인 이도희의 자손들이 일제 침략을 당하여 모두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던 것도 그와 같은 자부심과 애국심에서

16) 이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구사회, 「새로 발굴한 신승구의 <관동별곡번사>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41호, 2005, 237-270면/ 윤덕진, 「송강 가사 전승 사실의 맥락」, 『열상고전연구』 26집, 2007, 403-479쪽.)

비롯된 것이다.

본고에서 논의한 <직중독>도 『충무공행장』 한글본과 함께 그런 맥락에서 지어졌던 가사 작품이다. <직중독>은 아녀자들의 폐습을 경계하고 마땅히 지녀야 할 부덕을 권유하려는 의도에서 지어졌다. <직중독>은 덕수이씨 이충무공 후손가에 전해오던 <나부가>등과 함께 동일한 성격의 가사 작품이다. <직중독>과 <나부가>는 내용면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많은데, 둘 다 부녀자의 언행을 경계하고 지켜야 할 윤리 규범을 훈계하는 내용이다. 작품 짜임이나 표현 방식에서는 상호텍스트성이 존재한다.

<직중독>은 콘텍스트와 관련하여 독특한 전승적 가치를 지녔던 작품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덕수이씨 이충무공의 후손들이 충무공행장류 한글본과 계녀가사 <직중독>이라는 특정 문예물을 창작하여 집안 부녀자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전승시킨 독특한 사례로 확인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구사회, 「〈황산별곡〉의 작자 의도와 문예적 검토」, 『한국고전시가의 작품 발굴과 새로 읽기』, 보고서, 2014, 354-387쪽.
- _____, 「새로 발굴한 신승구의 <관동별곡변사>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41호, 2005, 237-270쪽.
- 김도남, 『상호텍스트성과 텍스트 이해 교육』, 박이정, 2003, 123~155쪽.
- 김 영, 「한글필사본 충무공행장에 대하여 -새 자료 우리한글박물관 소장 『통무공행장』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40, 열상고전연구회, 2014.
- 민중서림 편집부, 『漢韓大字典』(개정증보판), 민중서림, 1997, 797쪽.
- 박재연 주편, 『中朝大辭典(전9책)』4, 선문대 출판부·선문대 중한번역문헌연구소, 2002, 364쪽.
- 박재연 주편, 『필사본 고어대사전』(전7책), 학고방·선문대 중한번역문헌연구소, 2010.
- 윤덕진, 「송강가사 전승 사실의 맥락」, 『열상고전연구』26집, 2007, 403-479쪽.
- 이수진, 「조선후기 당파에 따른 도학가류 가사작품의 이본 분화 연구」, 『온지논총』39집, 2014, 99-123쪽.
- 임기중, 『한국 역대가사문학집성』,(누리미디어, <http://www.krpia.co.kr/pcontent>)
- 정한기, 「가사 <나부가>의 형성 배경에 대한 연구」, 『어문연구』34권 1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6, 377-380쪽.
- 홍재휴, 「가사」, 『국문학신강』(국문학신강편찬위원회 편), 새문사, 1985, 173쪽.

투고일 : 2014년 7월 5일, 심사 : 7월 17일~8월 8일, 게재확정 : 8월 8일

<Abstract>

A study on <Jikjungnok> a new Gasa work of Yi Do Hee

Gu, Sa-whae · Kim, Young

<Jikjungnok> is a Gasa work written by Yi Do Hee, a descendant of Chungmugong Yi in order to educate and enlighten the women in the family. Some Gasa works such as Korean Chungmugonghaengjang and <Jikjungnok> are literary works inherited from the descendent family of Chungmugung Yi in Deoksu Yi clan in the late Joseon.

The descendent family of Chungmugung Yi in Deoksu Yi clan in the late Joseon attempted to remind the achievement of Yi Sun Shin through Chungmugonghaengjang and also taught the proper behavior and ethical norm for woman in the family through Gasa works. The descendents of the author were engaged in the independent movement when there was a Japanese invasion later, which was originated from pride of the family and patriotic mind to the country.

<Jikjungnok> is a Gasa work that has the same character like <Nabuga> inherited in the descendent family of Chungmugung Yi in Deoksu Yi clan. <Jikjungnok> and <Nabuga> are similar in the contents both of which focused on the behavior and ethical norm of women. There is intertextuality in the structure and expression method in both works.

Key words : Gyeonyugasa, Nabuga, Chungmugong behavior, intertextuality,
Lee chungmugong, context

[부록] 전문

원문 판독 및 주석

아래의 원문은 필자가 입력 주석한 것이다. 독자의 편의를 위해 원문의 판독문을 세로쓰기에서 가로쓰기로 바꾸었다. () 안의 한자는 원문의 이해를 돕고자 필자로 임의로 넣었다.

직중녹이라

니봉강이 지은 거시라

【30b】 어와 부인들은 너 말씀 드려보오
 부모의게 효도하고 장부(丈夫)의게 공경하고
 동기간의 우익 잇고 일가친척 화목하고
 비복(婢僕)의게 은의(恩意)¹⁷⁾ 잇고 즈질들을 교훈하고
 부귀영화 썩 잇스니 남의 부귀 부러 마오
 남과 갓치 잘못 입고 남과 갓치 잘못 먹어
 고싱한다 한을 말고 착한 일만 힘을 쓰오
 유순부덕(柔順婦德)¹⁸⁾ 흐련이와 녀모정녕(女慕貞烈)¹⁹⁾ 제일이요
 한마암 굳게 가져 슈화(水火)²⁰⁾라도 변들 마오
 이왕의 지닌 일을 가만이 싱각하여
 허물이 잇거들낭 죽기로 힘을 써서

17) 은의(恩意):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뜻.

18) 유순부덕(柔順婦德): 부드럽고 온순해야 하는 아내의 덕.

19) 녀모정녕(女慕貞烈): 여자는 지조가 굳고 곧은 것을 사모해야 한다. 여자는 정절을 굳게 지키고 행실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

20) 슈화(水火): 매우 곤란한 환경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기과천선(改過遷善)호오며는 현부인(賢夫人)이 되압나니

【31a】 조심하고 조심호오 언어(言語) 범절(凡節) 조심호오

말 혼 번 실슈호면 꺾가망신(敗家亡身) 첩경(捷徑)²¹⁾이요

입 가온딕 불근 셔²²⁾난 몸 버히난 독괴오니

충언(忠言)이 아니여든 입 맞기 너지 말고

악언(惡言)이 들니거든 귀 기우려 듯지 마오

분한 일을 당호거든 어려운 걸 싱각호고

어려운 일 당호거든 스찰함을 싱각호오

심스(心思)를 바로 가져 빅스(百事)를 올케 호면

명천(明天)²³⁾이 감동호사 만복(萬福)을 나리시리

어진 부인 hing실 보오 효행(孝行)을 문져 호니

부모 명녕 드딕여셔²⁴⁾ 타문(他門)에 출가(出嫁)호여

신행(新行)²⁵⁾한 지 슴일 만의 부역 아리 드러가셔

【31b】 감지(甘旨)²⁶⁾를 맞들 적의 정성이 지극하다

계초명(鷄初鳴)²⁷⁾에 일어나셔 머리 빗고 세슈호고

넙식 업시 정(淨)²⁸⁾호고 부모 침쇼 드러가셔

나죽이 쇼리호여 공순이 못줍난다

안녕이 쥬무신가 무슨 옷슬 입으실가

무슴 엄식²⁹⁾ 줍슈실가 식성 맞게 봉양호니

부모의 명녕딕로 일호(一毫)나 어귀울가

노호시면 황공호니 꾸중한다 원망할ㄱ

21) 첩경(捷徑): 지름길.

22) 셔: 혀.

23) 명천(明天): 미신적관념에서, 모든 것을 환히 다 아는 하느님.

24) 드딕다: 디디다.

25) 신행(新行)하다: 혼행(婚行)하다. 혼인할 때에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다.

26) 감지(甘旨): 맛이 좋은 음식.

27) 계초명(鷄初鳴): 새벽닭이 처음으로 우는 것.

28) 정히: 정갈하게.

29) 엄식: 음식.

우마계견육축(牛馬鷄犬六畜) 중의 부모가 앓기거든

질타를 아니함은 부모를 위함이라

부모 병환 계시거든 의띠(衣帶)를 풀지 말고

약과 미음 맛솔 보아 지성으로 맞들지라

【32a】 옛적의 왕상(王祥)³⁰이난 친환(親患)을 당하여서

어름을 두다리니 이어(鯉魚)³¹가 썬어나고

엄동설한(嚴冬雪寒) 빙설(氷雪) 중의 죽순(竹筍)을 키였스니

효성을 감천(感天)하스 하늘이 주신 비라

부모의 의복 음식 비복(婢僕)을 맞지 말고

일 : 시 : (日日時時) 편안톡톡 섬길지라

마음을 편케 함이 효행의 제일이라

천붕지통(天崩之痛)³² 줄당하면 호천망극(昊天罔極)³³ 어이하리

부모의 음성인들 어딴 가서 드리볼가

초종장스(初終葬事)³⁴ 신흘곡(晨昏哭)과 우졸곡(虞卒哭)³⁵ 디쇼상(大小祥)³⁶을

예법으로 지닌 후의 봉제스(奉祭祀)³⁷ 지성일세

30) 왕상(王祥 184~268): 삼국시대 위(魏)나라 말 서진(西晉) 초 낭야(琅邪) 임기(臨沂) 사람. 자는 휴징(休徵). 성품이 지효(至孝)하여 계모가 한겨울에 생어(生魚)를 원하자 강으로 가서 옷을 벗고 얼음 위에 누워 얼음을 녹여 고기를 잡으려고 하니 두 마리의 잉어가 뛰어 나와 잡아 드렸다고 한다. 24孝의 한 사람이다.

31) 이어(鯉魚): 잉어.

32) 천붕지통(天崩之痛):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 임금이나 아버지의 죽음을 당한 슬픔을 이룸.

33) 호천망극(昊天罔極): 아버지의 은혜가 넓고 큰 하늘과 같이 다함이 없음을 이르는 말.

34) 초종장스(初終葬事): 초상이 난 뒤부터 졸곡(卒哭)까지 치러지는 온갖 일이나 예식.

35) 우졸곡(虞卒哭): 우제(虞祭)와 졸곡제(卒哭祭). 우제는 초우(初虞), 재우(再虞), 삼우(三虞)를 통틀어 이르는 말. 졸곡제는 삼우제를 지낸 뒤에 지내는 제사.

36) 디쇼상(大小祥): 대상(大祥)은 사람이 죽은 뒤에 두 돌 안에 지내는 제사. 소상(小祥)은 사람이 죽은 뒤 1년만에 지내는 제사.

37) 봉제스(奉祭祀): 조상의 제사를 받들어 모심.

효성이 : 러하고 남편 공경 모를손가

【32b】 남편이 중한 범이 하늘의 비하나니
부모 거상(居喪) 습년이나 남편 거상 평싱이라
두려하고 공경하야 공순이 맞들지라
사람의 집 흥망승쇠(興亡盛衰) 부인 현부 달녀나니
남편 허물 잇거들낭 공순이 간하여서
착한 말노 힘을 써서 기과천선 하게 호오
넉외(內外)가 화락(和樂)하면 만스가 덕길(大吉)하니
옛적의 극결(卻缺)³⁸이는 전간의 김을 밋니
그 안히 점심밥을 공순이 드릴 적의
손님갓치 덕접하니 그 아니 가록호가
옛날의 포선(鮑宣)³⁹이는 부즈집의 취처(娶妻)하니
의복지절(衣服之節) 찰난하미 안히다려 일은 말이

【33a】 이너 집이 간난(艱難)하야 저런 의복 못 보아소
그 안히 이 말 듯고 고훈 의복 다 바리고
흔웃 입고 도라와서 지성으로 섬겼시니
부 : 지간(夫婦之間) 이러하고 동기(同氣) 우의(友愛) 업슬손나
형우제공(兄友弟恭)⁴⁰ 극진하니 형제 일신 분명하다
옛적의 한 스람은 미씨(妹氏)를 위하여서
친이 약을 다리다ᄃ 슈염을 쓰스렛너
즈식은 업더티도 쏘 다시 나련이와
동싱 한 번 업셔지면 어디 가서 다시 불가
즈녀을 가라치되 예의 엄치 몬져 하고

38) 극결(卻缺): 춘추시대 진(晉)나라 사람. 대부(大夫)를 지냈다. 극군(卻君) 또는 기결(冀缺)로도 불린다. 기읍(冀邑)에서 농사를 짓고 살면서 부부간에 서로 공경하기를 손님을 대하듯이 했는데, 구계(臼季)의 천거를 받아 하군대부(下軍大夫)가 되었다.

39) 포선(鮑宣): 중국 한나라 때의 재상.

40) 형우제공(兄友弟恭): 형은 아우를 사랑하고 동생은 형을 공경한다는 뜻.

덕순(大舜) 증즈(曾子) 효성이며 틱스(太姒) 틱임(太妊) 덕형이며
 밉모(孟母)의 삼천지교(三遷之教)을 본을 바다 갈아치오

【33b】 남녀간 칠 세여든 부동석(不同席) 불공식(不共食)과
 쇄소응딴(灑掃應對)⁴¹⁾ 진퇴지절(進退之節)⁴²⁾과 예악스어셔슈(禮樂射御
 書數)⁴³⁾로다

부즈간의 유친(有親)이며 군신간의 의(義) 잇스며
 부 : 간의 유별(有別)이며 장유간의 츠례 잇고
 봉우간의 신이 잇고 슈신제가치국(修身齊家治國)호고
 평천하(平天下)호난 도를 츠례로 갈아친다
 녀즈의 형실이며 남즈의 형할 일을
 분명이 갈아치니 방적침선(紡績針線)⁴⁴⁾ 업슬손가
 봉제스(奉祭祀) 접빈객(接賓客)을 어이 아니 갈아치리
 어진 부인 틱괴 잇서 몸 가지난 법을 보쇼
 악한 빗출 아니 보고 음한 쇼릭 아니 듯고
 빗군 즈리 아니 안고 어슨 음식 아니 먹고

【34a】 기울게 아니 셔고 가희 가 아니 안져
 성인 아들 나아쓰니 그 아니 가록호가
 즈손이 만당(滿堂)한 후 비복이 션 : 호다
 남노녀복(男奴女僕) 불일 적의 고르게 분비호오
 상하가 화목호니 비복이 열복(悅服)⁴⁵⁾한다
 빅즈천손(百子千孫)의 만세무강(萬世無疆)호리로다
 못된 부인 형실 보쇼 불효가 막심호니

41) 쇄소응딴(灑掃應對): 물을 뿌려 쓸고 응대한다는 뜻으로, 집 안팎을 깨끗이 거두고 웃어른의 부름이나 물음에 응하여 상대함을 이르는 말.

42) 진퇴지절(進退之節): 나아가고 물러날 때의 절도.

43) 예악스어셔슈(禮樂射御書數): 군자육예(君子六藝)로, 예의, 음악, 활쏘기, 말타기, 글쓰기, 수학을 말한다.

44) 방적침선(紡績針線): 길쌈과 바느질.

45) 열복(悅服): 기쁜 마음으로 복종하다.

공경을 모르거든 은의를 엇지 알꼬
제 부모 불효하며 나의 부모 공경하기
제 동싱 뉘워하며 남의 동싱 스랑하기
공연이 투괴(妬忌)해야 너외간 불화하고
가난하다 원망하고 남의 부귀 부러하기
【34b】 식부모 식동싱의 업난 흥 잡아내기
동셔간 동싱간의 속술 : : 46) 이간하기
고약한 말 간스 부러 장부의게 ㄹ당(阿黨)⁴⁷⁾하기
게으름 짝이 업셔 아의 끼고 낮잠 쓰기
가난하다 즈세하니 남편 의복 남누하다
제스를 당하면은 공연이 증(症)⁴⁸⁾을 너여
즌식의 타시런가 쥬먹으로 두다리기
늑간딤청(六間大廳) 구루면서 비복을 꾸진난다
욕으로 제 지니니 신도(神道)⁴⁹⁾ ㄱ 흠향(歆饗)⁵⁰⁾할가
손님이나 오시면은 귀치 안타 꾸짖난다
스랑문 비겨 셔 : 은근이 여어 보기
타인을 덕하여서 친정 즈랑하난고나
【35a】 호의호식(好衣好食)하던 몸이 식집 와서 고싱한다
친정 스람 만나보면 식집 흠담 잡아내기
친정 전곡(錢穀) 가져다가 식집 먹여 슬년노라
괴세가 당 : 해야 집안을 휘젓난다
긴 담비딤 빗기 물고 술 먹고 세척(貰冊) 보기
조흔 말 허튼 우슴 남을 속여 빗너 쓰기

46) 속술속술: 속살속살. 남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작은 목소리로 자질구레하게 자꾸 이야기하는 소리나 모양.

47) ㄹ당(阿黨):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환심을 사려고 아첨함.

48) 증(症): 화증(火症). 짜증.

49) 신도(神道): 귀신을 높여 이르는 말.

50) 흠향(歆饗):神明(神明)이 제물을 받아서 먹음.

오락가락 말질혀여⁵¹⁾ 무릅맞침⁵²⁾ 일슈로다
삼종지의(三從之義) 모로거든 칠거지악(七去之惡) 어이허리
돈을 주어 군것질과 남의 물건 집어오기
즈식 역성 덕단하니 어른을 헤아리라
쇼문이 낭즈하니 즈녀 혼취 어이하리

【35b】가도(家道)가 일어하고 복록(福祿)을 누릴손나
평싱 고싱 고스하고 꺾가망신(敗家亡身) 불상찬타
제 한 몸은 고스하고 식집이 가련하다
조고마한 일기 녀가 남의 집을 망케 허네
여보시오 부인들은 조심하고 조심호오
규중(閨中)의 깃히 잇셔 은근이 하난 일도
허날이 드르시고 귀신이 눈이 잇셔
즈연이 쇼문나니 그 아니 두려운ㄱ
착한 일 올은 흥실 평싱을 다허여도
오히려 못허거든 하물며 그른 흥실
일호나 흥허여셔 욱급부모(辱及父母)⁵³⁾ 어이허리
넉 몸이 귀허거든 교만허믈 경계호오

【36a】넉 몸만 못한 스람 업신역여 보지 마오
음식의 층허(層下)⁵⁴⁾ 말고 언어의 순후(淳厚)호오
무어슬 남을 주고 공치스(空致辭) 허지 마오
남의 음식 바더 먹고 호부(好否)를 말을 마오
무슴 일 당허거든 아난 체 허지 말고
어룬의게 무러 허고 남의게 의논호오
부귀영화(富貴榮華) 누리거든 넉 몸만 호강 말고

51) 말질허다: 말질하다. 이러니저러니 하고 말로 다투거나 쓸데없이 말을 옮기다.

52) 무릅맞침: 무릎맞춤. 두 사람의 말이 서로 어긋날 때, 제삼자를 앞에 두고 전에 한 말을 되풀이하여 옳고 그름을 따짐.

53) 욱급부모(辱及父母): 욱이 부모에게까지 미침.

54) 층허(層下): 낮게 보아 소홀히 대접함.

구촉한 일가친척 구제함을 힘을 쓰오
고맙게 하던 스람 은혜 갑기 힘을 쓰고
착한 일 보거들낭 본맞기를 힘을 쓰고
그른 일 보거들낭 너 몸만 경계하고
익미한 말 들니거든 왜 : 이 발명(發明)⁵⁵⁾ 말고
【36b】 더욱이 조심하여 너 몸만 즈척하면
익미한 그 허물을 즈연이 발명하너
남의게 적선(積善)하면 경스(慶事)가 좃츠오고
남의게 적악(積惡)하면 양화(殃禍)ᄃ 일어나니
잘못된 일 잇거든 남의 탓 하지 마오
규중만 직회우고 귀경을 조화 마오
호정출립(戶庭出入)⁵⁶⁾ 하올 적의 즈최가 분명하게
나지면 기침하고 밤이면 불을 켜고
범절이 : 러하면 현부인이 되압나니
명천(明天)이 슬피압셔 고싱 쫓테 영화(榮華)로다
즈식을 길너보면 부모 은덕 짐작하리
무궁무진(無窮無盡)하온 은덕 갑기를 의논컨디
【37a】 쇄신분골(碎身粉骨)홀지라도 만분지일 갑흘손가
갑기는 고스하고 걱정이나 업게 하오
어와 이 글이여 보암즉던 아니하나
구 : 한 이너 쓰즐 저바리지 말지여다

曾經和順郡守 덕슈후인 니봉강은 근셔하노라 봉강의 휘난 道熙
신축(辛丑) 정월(正月) 십팔일은 등셔우안성직중(謄書于安城客中)하노라
이 직중록을 고담(古談)으로 알지 말고 상목지지(常目在之)⁵⁷⁾하여 잇지

55) 발명(發明): 죄나 잘못이 없음을 말하여 밝힘. 또는 그리하여 발뺌하려 함.

56) 호정출립(戶庭出入): 마당 안에서만 드나듸.

57) 상목지지(常目在之): 늘 눈여겨보게 됨.

말면 현부인이 될 거시오 만일 즈포즈기(自暴自棄)하여 이갓치 하난 스람
이 어디 잇스랴 하면 이난 하우불이(下愚不移)⁵⁸⁾요 쏘 가도난 반다시 비
식(丕塞)⁵⁹⁾하리라

58) 하우불이(下愚不移): 어리석고 못한 사람은 언제나 그대로 있지 발전하지 못한다
는 뜻.

59) 비식(丕塞): 운수가 나빠서 딱 막히는 것. 불운함.